페퍼저축은행, 최가은 내주고 이고은 다시 품었다

도로공사와 트레이드 단행…6일 만에 트레이드로 다시 컴백

최가은·신인 1라운드 지명권↔이고은·신인 2라운드 지명권

여자배구 페퍼저축은행이 보상 선수로 잃었던 세터 이고은을 6일 만에 트레이드로 다시 데려왔다.

페퍼저축은행은 2일 "최가은과 2023~2024시즌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한국도로공사에 내주고 이고은, 2023~2024시즌 신인드래프트 2라운드 지명권을 받아오는 트레이드를 단행했다"고 알렸다.

눈길을 끄는 이름은 이고은이다.

도로공사에서 뛰던 이고은은 2022~2023시즌을 앞두고 페퍼저축은행과 3년 9억9000만원에 프리에이전트(FA)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한 시즌 만에 페퍼저축은행을 떠나게 됐다.

이번 FA 시장에서 도로공사 주포 박정아를 영입한 페퍼저축은행이 보호선수 명단에서 이고은을 제외하자, 도로공사가 이고은을 보상선수로 지명했기 때문이다.

페퍼저축은행은 박정아를 여자부 최고 대우인 보수액 7억7500만원을 주고 데려와 공격력을 보강했지만, 주전 세터 이고은을 빼앗기며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결국 도로공사와 트레이드를 통해 이고은을 되찾게 됐다. 이고은은 지난달 26일 박정아의 보상선수로 팀을 떠난지 엿새 만에 컴백했다.

대신 페퍼저축은행은 주전 미들블로커인 최가은을 도로공사에 내줬다.

최가은은 2019~2020시즌 전체 5순위로 IBK기업은행에 입단, 2021년 페퍼저축은행 신생팀 특별지명으로 유니폼을 갈아입었다.

김동언 페퍼저축은행 단장은 "이고은 선수 영입을 통해 베테랑의 힘을 더하는 동시에 세터 운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가은 선수도 도로공사에서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

페퍼저축은행 이고은.

우상혁 "바르심 자꾸 이겨봐야 파리도 넘을 수 있다"

도하 다이아몬드리그 참가 위해 출국

도하 다이아몬드리그 2연패를 노리는 '스마일 점퍼' 우상혁(27·용인시청)이 올해 첫 실외 대회에서 첫 단추를 잘 꿰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3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카타르 도하로 떠나는 우상혁은 2일 오후 취재진과 만나 "내년에 2024 파리올림픽이 있고, 올해 잘해야 내년에도 잘할 수 있다. 도하 다이아몬드리그는 올해 처음 치르는 실외 대회다"며 "첫 단추를 잘 꿰야 기분좋게 올 시즌을 치를 수 있다. 도하에 가서 첫 단추를 잘 꿰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우상혁의 올해 첫 국제대회 출전은 지난 2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대회였다. 대회를 앞두고 부비동염 때문에 훈련을 충분히 하지 못한 우상혁은 2m24를 기록, 2m28을 넘은 아카마스 료이치(일본)에 이어 은메달을 땄다.

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부비동염 수술을 받은 우상혁은 약 40일 동안 제주도에서 훈련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우상혁은 올해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 개막전인 도하 대회를 시즌 첫 실외 대회로 점찍었다.

우상혁은 "올해 초 전지훈련을 하면서 부비동염 때문에 힘들었는데, 수술을 하고 삶이 달라졌다. 제주도로 간 이후에도 병원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지금은 괜찮은 상태"라며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걸리적거렸는데 지금은 괜찮아졌다"고 밝혔다.

부비동염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아시아실내선수권 출전을 강행했던 것에 대해 우상혁은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것은 자부심이고, 나라를 대표하는 것은 저에게 영광스러운 순간이다"며 "힘든 상황이었지만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서 대회에 출전했다"고 돌아봤다.

우상혁은 지난해 도하에서 좋은 기억을 남겼다. 지난해 5월 14일 도하에서 열린 2022 다이아몬드리그 개막전에서 2m33을 넘어 우승했다. 한국 선수가 다이아몬드리그에서 우승한 것은 우상혁이 최초였다.

역대 2위(2m43)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현역 최강자' 무타즈 에사 바르심(32·카타르)을 제치고 일군 쾌거였다. 당시 바르심은 2m30을 기록해 우상혁의 뒤를 이어 2위에 올랐다.

이후 바르심과의 대결에서는 우승을 내줬다. 우상혁은 지난해 7월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벌어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2m35를 기록, 2m37을 넘은 바르심에 이어 은메달을 땄다.

우상혁은 "지난해 바르심과 마지막까지 남아 경기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지난해 도하에서는 이겼다"며 "올해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과 항저우 아시안게임, 내년 파리올림픽에서 우승할 수 있으려면 다이아몬드리그에서 바르심과 경쟁하면서 이기는 경험을 조금 더 많이 해야한다. 그러면 큰 대회에서도 바르심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르심과 서로 경쟁을 해야 더 좋은 기록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기록이 전체적으로 안 좋으면 선수들도 다 저조하다"며 "다같이 좋은 기분으로 경기를 마치고, 좋은 기록을 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도하 다이아몬드리그를 앞두고 여러 차례 실내 대회에 출전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던 우상혁은 이번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훈련으로 보냈다.

우상혁은 "지난해 시즌 초반 에너지를 많이 썼다면, 올해에는 거의 힘을 안 썼다. 올해 후반에 세계선수권,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아시안게임 등 중요한 경기가 몰려있다.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한다"며 "올해에는 시즌 후반부에 에너지를 쏟아부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도하 다이아몬드리그에 출전하기 전 우상혁은 시차를 대비해 저녁에 훈련을 했다. 올해에도 시차를 대비해 생활 패턴을 바꿨다.

우상혁은 "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실행해 경기하면 후회가 없을 것 같다"며 "많이 보면서 응원해주셨으면 좋겠다. 응원해 주시면 고스란히 받아 재미있게, 즐기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잘 뛰어서 중계에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원을 당부했다.

뉴시스

'메이저 3승' 이다연, 국내 첫 '커리어 그랜드슬램' 이룰까

KLPGA 역사상 커리어 그랜드슬램無

이다연·박민지, 올해 달성 놓고 경쟁

이다연(메디힐)이 올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첫 메이저 대회인 크리스에프앤씨 KLPGA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메이저 3승을 일궜다. 이에 따라 이다연은 KLPGA 역사상 아무도 해내지 못한 '커리어 그랜드슬램(5개 메이저 대회 중 4개 우승)'에 근접했다.

이다연은 메이저 대회인 2019년 한국여자오픈과 2021년 한화 클래식에서 우승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KLPGA 챔피언십에서 또 우승을 차지했다. 메이저 대회 우승만 3회다.

선수가 한 시즌에 4개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이 그랜드슬램이고 시즌에 관계 없이 활동기간 중 4개 메이저 대회 우승을 가져오는 것을 커리어 그랜드슬램이라고 부른다.

KLPGA투어에서 메이저 대회 5개는 KLPGA 챔피언십과 한국여자오픈, 한화 클래식, KB금융 스타챔피언십,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이다.

그간 고우순(7승), 신지애(5승), 김순미(4승), 장하나(4승), 김효주(4승), 전인지(3승), 강춘자(3승), 구옥희(3승), 서희경(3승), 박민지(3승) 등이 커리어 그랜드슬램에 근접했지만 누구도 5개 메이저 대회 중 4개에서 우승하지는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다연이 역대 첫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 후보로 급부상했다.

한국여자오픈과 한화 클래식, KLPGA 챔피언십을 정복한 이다연은 오는 9월 KB금융 스타챔피언십이나 10월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 한국 여자골퍼 최초로 KLPGA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다.

지난해 팔 인대 파열로 수술과 재활에 집중했던 이다연은 복귀 후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메이저 강자로서 자격을 입증했다.

경쟁자도 많지 않다. 현역으로 활동 중인 후보들 중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집중하고 있는 김효주와 전인지,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로 떠난 신지애,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장하나 등은 이다연을 위협하기 어려운 처지다.

사실상 유일한 경쟁자는 박민지다. 박민지는 2021년 한국여자오픈에 이어 지난해 하이트진로 챔피언십과 KB금융 스타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메이저 3승을 적립했다. 박민지는 이번 KLPGA 챔피언십에서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을 노렸지만 이다연에게 우승을 빼앗기고 말았다.

이다연과 박민지 중 누가 먼저 KLPGA 역대 첫 커리어 그랜드슬램이라는 영예를 차지할지는 이르면 올해 판가름날 수 있다.

오는 8월 열리는 한화 클래식 2023이 분수령이다. 박민지가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먼저 커리어 그랜드슬램에 도달한다.

반면 박민지가 한화 클래식을 놓치면 기회의 문은 이다연에게 열린다. 이다연은 오는 9월 KB금융 스타챔피언십이나 10월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중 하나만 우승하면 된다.

통산 16승을 거뒀지만 올 시즌 주춤하고 있는 박민지와 부활을 알린 이다연 중 누가 먼저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할지에 골프팬들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축구협회 새 이사진 발표

상근부회장에 김정배 전 문체부 차관

승부조작자 사면 논란으로 비난받았던 대한축구협회가 새 이사진을 발표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이사진 25명을 공개했다. 또 경기인 출신이 이어오던 전무직을 폐지하고 상근부회장 제도를 도입했다.

상근부회장으로는 김정배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영입됐다.

부회장단에는 한준희 해설위원(홍보), 장외룡 전 감독(기술), 원영신 연세대 명예교수(여성), 하석주 아주대 감독(학교축구), 최영일 전 국가대표(대회운영), 이석재 경기도축구협회장(시도협회 대표)이 선임됐다.

이 중 최영일·이석재 부회장은 유임됐다.

분과위원장의 경우 정해성 대회위원장, 마이클 뮐러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 이임생 기술발전위원장, 서동원 의무위원장이 유임된 가운데 이윤남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여성 및 윤리위원장), 소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공정위원장), 김태영 전 국가대표 코치(사회공헌위원장)가 새로 선임됐다.

독수리 조련에 깨어난 '축구 천재' 양현준

올 초반 코뼈 골절 등 부진…개막 10경기 만에 첫 골 최용수 감독 믿음에 호응

프로축구 K리그1 강원 양현준. (사진=프로축구연맹 제공)

잠자던 '축구 천재'가 마침내 깨어났다.

양현준은 지난달 29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 현대와의 하나원큐 K리그1 10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 감각적인 오른발 칩슛으로 결승골을 터트려 강원FC의 1-0 승리를 이끌었다.

직전 FC서울과의 경기 3-2 극장승에 이어 전북을 잡은 강원은 개막 첫 연승을 달리며 중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해결사는 양현준이었다. 0-0으로 팽팽한 흐름이 이어지던 후반 막판 골 본능이 빛났다.

양현준은 지난 시즌 깜짝 등장해 K리그1 영플레이어상을 거머쥐며 주목받았다. K리그1에서 8골 4도움을 기록한 그는 축구대표팀에 호출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탔다.

특히 지난해 6월 손흥민의 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의 방한 경기 때 K리그 올스타로 나서 폭발적인 드리블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비록 2022 카타르월드컵 최종 명단에는 들지 못했지만, 한국 축구를 이끌 차세대 골잡이로 미래가 더 기대됐다.

하지만 올 시즌 출발은 더뎠다. 개막 후 서울과의 경기 전까지 공격포인트를 하나도 올리지 못했다.

코뼈 골절 여파도 있었지만, 지난 시즌과 달리 결정적인 순간 득점 기회를 날리는 일이 잦아지면서 결정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달 9일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선 전반만 뛰고 교체됐고, 팀의 0-2 패배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양현준을 깨운 건 '독수리' 최용수 감독의 믿음이었다.

제주전 조기 교체로 충격 요법을 준 최 감독은 이후 양현준을 꾸준히 기용하며 신뢰를 줬다. 이른바 '밀당'으로 양현준의 승부욕을 자극했다.

광주FC전에서 막판 결정적인 기회를 날린 뒤에도 서울전에 양현준을 선발로 내보냈다.

명공격수 출신인 최 감독은 누구보다 공격수의 심리를 잘 아는 지도자다. 제자의 슬럼프에도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다.

최 감독의 믿음에 양현준은 서울전에서 서서히 발동을 걸기 시작했다.

특유의 돌파력을 앞세워 박상혁의 선제골을 도우며 첫 공격 포인트를 올린 그는 전북전에서 결승골로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쌓았다.

시즌 초반의 부침은 양현준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조금 느렸지만 그의 시즌은 이제 시작이다.

뉴시스